

WHAT'S YOUR STORY



[정규과정] 11가지 법칙으로 끝내는 스토리텔링

주제 : 삶의 경험을 스토리 속에 녹여내는 방법

자전적인 경험을 소재로 스토리텔링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봅니다.

튜터 한명섭

삶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글 속에 녹여내어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까?
작가들은 소재,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까?

1. 자신의 독서와 경험을 이용한다.

2. 추가로 다른 사람의 삶, 예를 들어 친구의 이야기도 이용하며,
잘 아는 사람을 모델로 삼거나 여기에 허구를 보태기도 한다.

3. 글이라는 허구적 세계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여과시키며 풍요롭게 만든다.

삶의 경험은 대부분의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작품을 쓰게 만드는 주요 원천이다.

그렇다고 해서 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작가의 경험이라는 오해를 하지는 말아야 한다.

〈장미의 이름〉을 쓴 움베르토 에코가 수도승이 아니었고,
〈향수〉를 쓴 파트리크 쥐스킨트가 연쇄 살인자는 아니다.





작가에게는 모험적인 체험이나 열정적인 감정보다
그와 같은 체험과 감정에 공감하고, 언어를 통해 그것에 등장인물과 스토리를 입혀,
독자들이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열정적이고 모험적인 것을 경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뒤로 물러서서 삶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낯선 곳을 누비고 다니는 모험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지역과 사회계층, 주변 환경에서 심리적 동요와 함께
얻게 되는 사람의 경험은 작가에게 필요하다.

삶의 경험과 글쓰기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원칙들을 기억해 두자

1. 기본적으로 삶의 경험은 글쓰기에 유용할 수 있다. 정신적 갈등과 고통도 마찬가지다.
2.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격랑으로부터 거리를 두어라.
성공적인 글쓰기는 심리 치료 차원에서 글을 쓰는 태도를 극복했을 때 가능하다.
3. 역사사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보다 작가로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4. 글을 쓰는 사람은 호기심이 많아야 한다.
모든 것에 흥미를 가지되, 가능한 어떤 것도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거부하지 말라.
세상은 천박하고 비루하다. 그러나 세상은 그 자체로 다채롭고 풍요롭기도 하다.
이러한 세상의 양면성은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경험을 가지고 글을 쓸 때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독자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작가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독자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효과가 중요하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글을 쓰면,
신빙성과 개연성이 없는 글을 쓰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심리적인 이해를 하고 싶어한다.
그러기 위해 글에서 개연성과 신빙성을 요구한다.

자전적인 글쓰기를 할 때 개연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을 지키도록 주의하면 좋다

◎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자신을 관찰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관대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태도가 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신을 희생자 자리에 놓고
고통스러워 하는 글 만을 계속 쓴다면 독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

◎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
삶의 위기, 씁쓸한 고통의 순간을 주목하라.
이때 주의할 점은 단편적이거나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것이다.

◎ 글을 쓸 때, 갑자기 떠오르는 좋은 착상, 스케치, 관찰, 대화, 기억 등을
메모해 두어라.
메모를 할 때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래야 나중에 집필할 때 글의 구체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도 있다.

